

中國 少數民族神話 研究를 위한 試論

鄭 珍 善*

-
- | | |
|------------------|-----------------|
| 1. 들어가는 글 | 4. 국가신화에서 개별신화로 |
| 2. 소수민족신화의 자료 개관 | 5. 나가는 글 |
| 3. 주변에서 중심으로 | |
-

1. 들어가는 글

‘중국’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漢族¹⁾과 55개의 소수민족²⁾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선사시대부터 소수민족은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며 존재해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족 뿐 아니라 55개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그 존재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황하유역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한족이 일방적으로 우수한 문화를 전해주었다라고 하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폄하하였다. 이런 견해는 1970년대 이후 각종 고고학적 발견으로 고대 중국의 문화가 한족이 지배하였던 황하 중하류 지역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

* 필자 : 서울대 강사

- 1) 사실 ‘한족’의 실체도 모호하다. 중국 역사를 고찰해 보면, 秦漢의 정치적인 통일로 인하여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간의 투쟁과 대규모의 이동으로 주변 민족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 속에서 소수민족의 일부분은 분화되어서 한족으로 융합되었고, 한족의 일부분도 소수민족과 융합하기도 하였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이란 ‘만들어진 전통’이다.
- 2) 김선자는 ‘소수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점유하고 있고, 수적으로 우세한 ‘한족’의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한족과 한족 이외의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非漢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中國感生神話研究>, <中國語文學論集> 제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995, 29쪽.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만, ‘비한족’이란 용어는 ‘한족’대 ‘비한족’이라는 또 다른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고에서는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 한 가지 상기해야 할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족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55개의 소수민족’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55개’라는 숫자는 이후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다.

발적으로 발생하여 각기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음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재인식되고 있다.³⁾ 다시 말하면,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함께 일구어온 ‘공동의 공간’으로,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천의 얼굴을 가진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단일하고 균질체적인 공간이라 오해하며, ‘중국’이라는 개념을 종종 혼동한다. “중국신화가 단편적이며 중국인은 신화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구조를 지녔다”⁴⁾라고 할 때의 ‘중국’은 권력을 장악한 한족의 나라이고, 소수민족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중국에는 史詩가 풍부하다”라고 할 때의 ‘중국’은 한족과 여러 소수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의 범위를 일관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학사를 서술할 때도 종종 발생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중국문학사》에는 소수민족의 문학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반면, 《民間文學史》에서는 소수민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라는 개념 속에 소수민족의 문화 및 문학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최근 중국 당국과 학계도 이러한 모순을 깨닫고 ‘中華’라는 개념으로 중국 경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中華文學通史》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중국문학’이란 당연히 우수한 문화를 형성했던 한족의 문학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수민족의 문학은 오랑캐의 문학, 혹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신화’의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류학·민속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들이 소수민족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신화에 주목하여 채록하기 시작하면서 텍스트의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문헌의 전통이 공고했던 학자들은 ‘글’이 아닌 ‘말’을 채록한 구전신화, 그것도 ‘소수민족’의 자료를 선뜻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수민족의 신화가 ‘말’로 전해지기 때문에 ‘변형’의 가능성이 커서 원형의 모습을 보존할 수 없고, 신화를 채록할 때 기록자가 임의로 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료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구술문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렇게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통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독특한 사고와 표현으로 귀중한 지식을 보존한다.

3)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여 몇 개의 커다란 문화계통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황하 유역의 仰韶文化와 이 토대 위에서 발전한 河南·山西·河北의 龍山文化, 大汶口文化와 이 토대 위에서 발전한 山東 용산문화, 長江 유역의 河姆渡文化·馬家浜문화와 이 기초 위에서 발전한 良渚文化·屈家嶺文化, 동북지역의 新樂下層文化·紅山文化 등이 있다. 이성규, <중국 문명의 기원과 형성>, 《강좌 중국사 1》,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연구실 편, 지식산업사, 28-30쪽 참조. 또한 청동기 문화도 강장상류의 蜀문화, 중류의 吳越문화, 하류의 湖熟문화·雲貴 고원과 廣東·廣西 지역의 문화, 북방과 동북민족의 鄂爾多斯문화 등 중원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田繼周 等, 《少數民族與中華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6, 28쪽.

4) 魯迅, 《中國小說史略》, 조관희 옮김, 살림출판사, 1998, 54-55쪽 참조.

또한 구전자료는 전하는 사람의 서술태도, 기본학식, 정보량, 그리고 화술적 재능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이 크지만, 기본적인 모티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⁵⁾

또한 소수민족의 신화가 텍스트로 상정되지 못한 데에는 ‘신화’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 대 초반까지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득한 고대인들의 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문헌신화’만을 진정한 신화라 여기고, 소수민족과 한족 사이에 전승되는 구비신화를 신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화란 과거에도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신화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신화가 갖고 있는 사회·역사·문화적 맥락이 중요한데, 이미 박제화 된 문헌자료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에도 여전히 세계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신화에도 알맞은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소수민족의 신화를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시켜 중국신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려는 작업이 시도 중이다.⁶⁾ 하지만 아직 소수민족신화 그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⁷⁾ 본고에서는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에게 전승되고 있는 풍부한 구비신화를 살펴보고, 소수민족의 문화가 문자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한족의 시각에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신화가 언제나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귀중한 연구 대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고대 중국이 기원과 계통을 달리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중국신화의 범위를 단순히 한족의 신화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으며,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각 지역·민족 등 개별적으로 접근해야만 그 특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소수민족신화의 자료 개관

20세기 초 까지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조상들의 경험과 지식을 ‘글’이 아닌 ‘말’로써 전달하는 구술문화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생활하

5) 朱鐘演, 《韓獨民譚比較研究》, 집문당, 1999, 116-117쪽 참조.

6) 정찬학, 《중국 흉수남매혼신화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김경아, 《중국 영웅신화의 구조와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유진, 《중국 하늘사다리 신화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유강하, 《중국 유아희생신화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오유미,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7) 이 방면에서 이연희의 《중국 소수민족신화 시론》(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은 선구자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논문의 초점이 신화상의 모티프를 위주로 한족과 소수민족의 상호영향 관계에만 맞추어지고, 그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였다. 따라서 그들은 신화를 비롯한 풍부한 구비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인류학·민속학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일부 학자들은 구비문학의 채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 중국 국내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일군의 학자들이 소수민족지역, 특히 서남지역에 거주하며 전승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기록하였다. 체계적인 현지조사 방법을 익히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중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중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55개의 소수민족 사회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각 민족의 종교·풍속·신화 등 다방면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이때 얻은 자료는 기록자가 유물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침착한 것이 많다.

그러나 1980년 대 중국 대륙에서 신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채록할 때 반드시 이야기 또는 공연을 하는 구연자와 기록자의 이름 날짜 시간 등을 병기하여 자료적 신빙성을 제고하였다. 각 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三套集成》⁸⁾은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서 각 縣마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신화와 전설 및 각종 구비문학을 수집한 이후에 훈련받은 민속학자들이 그것을 하나씩 검토해서 기록자의 왜곡이 들어간 것을 선별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작품을 모은 것이다. 최근에 출판된 《中華民族故事大系》는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신화전설을 각 민족별로 기술하였다. 소수민족의 문학을 연구한 총서들로는 呂大吉·何耀華 등이 편집한 《中國各民族原始宗教資料集成》,⁹⁾ 編審委員會가 편집한 《中國各民族宗教與神話大辭典》¹⁰⁾ 등이 있는데, 이 저서들은 여러 민족의 종교와 제의 행위 등을 함께 다루어 각 신화의 문화적 맥락을 살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雲南省·貴州省에서는 소수민족의 신화를 漢文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소수민족의 신화를 동북·서북·서남·중동남 등 지리권별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1) 동북지역

黑龍江·吉林·遼寧·內蒙古 지역에는 滿族·蒙古族·鄂倫春族·鄂溫克族·達翰爾族·赫哲族 등 7개 민족이 거주한다. 만주족·鄂倫春族·鄂溫克族 등의 언어는 만주 퉁구스 語族, 몽고족과 達翰爾族의 언어는 몽고 어족에 속한다. 이 가운데 만주족·몽고족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민족은 漢字나 몽고족의 문자를 사용한다.

8) 신화전설·歌謠·諺語 등 세 부분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현재 각 성별로 속속 출판되고 있다.

9)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10) 學苑出版社, 1993.

만주족은 종교적 지도자 샤만에 의하여 대량의 신화가 전승되는데, 이 가운데男神 阿布 卜恩都裏가 세상을 창조한〈天神創世天和地〉, 홍수 발생 이후 남매가 인류를 다시 번식시켰다는〈人的來歷〉가 대표적이다. 赫哲族에게는〈伊瑪堪〉이라는 장편 說唱詩가 전해지는데, 영웅 莫日根이 태양을 활로 쏘는 내용이다. 몽고족도 구비문학의 전통이 풍부한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웅서사시〈江格爾〉와〈格斯爾〉를 꼽을 수 있다. 몽고족의 문자문학은 元나라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는데,《蒙古秘史》¹¹⁾가 있다.《몽고비사》에는 몽고족의 조상이 이리라는 내용의 신화와 태양에 감응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시조신화 두 편이 실려 있다.

2) 서북지역

陝西·甘肅·寧夏·青海·新疆 지역에 回族·東鄉族·土族·薩拉族·保安族·위그르족·哈薩克族·柯爾克孜族·錫伯族·塔吉克族 등 14개 민족이 산다. 漢語를 사용하는 回族과 인도유럽어계에 속하는 塔吉克族·러시아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족이 알타이어계 언어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위그르족·哈薩克族·柯爾克孜族만이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기타 민족은 한자나 이들 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한다.

土族에게는 혼례를 치를 때 부르는〈混沌周末〉이 전해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아직 개벽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돌로 된 알이 생겼다. 800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이 돌로 된) 알이 깨지자 그 안에서 盤古가 걸어 나왔다. 반고가 끝과 도끼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徐整이 편찬한《三五歷紀》의 반고신화와 비견된다. 회족과 柯爾克孜族에도 창세신화가 전해지지만, 대부분《코란경》의 모티브를 채용한 것이다.

이 지역의 문학작품은 이슬람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따라서 서북지역 민족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작품의 제재나 모티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3) 서남지역

四川·西藏·貴州·廣西·雲南에는 藏族·門巴族·珞巴族·羌族·彝族·白族·哈尼族·族·佤族·拉祜族·納西族·景頗族·布郎族·阿昌族·普米族·怒族·崩龍族·獨

11) 《몽고비사》는 몽고의 역사를 서술한 최초의 전적으로, 대략 124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책은 민간에 전해지던 傳說·民歌·格言·詩歌 등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으로, 몽고족의 역사서이자 문학 작품이다. 王孝廉,《中國的神話世界-各民族의創世神話及信仰(上)》,時報文化出版社, 1987, 73-81쪽 참조.

龍族·基諾族·苗族·布依族· 族·水族 등 25개 민족이 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藏緬語族·壯 語族·苗瑤語族·孟古棉語族에 속한다. 藏族·納西族·彝族·哈尼族· 族·拉祜族·景頗族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민족은 문자가 없다. 이 가운데苗族과 彝族에 대하여 살펴보자.

苗族은 지금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신화가 매우 풍부하다. 〈苗族古歌〉¹²⁾는 크게 여러 영웅들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開天僻地〉, 인류의 기원을 노래한 〈楓木歌〉, 홍수 발생 후 인류의 재생을 노래한 〈洪水滔天〉, 묘족의 선민들이 ‘東方’에서 귀주 산악지대로 옮겨온 역사적 사적을 서술한 〈跋山涉水歌〉 4개로 구성된다. 〈苗族史詩〉¹³⁾는 기본적인 내용과 순서가 대체로 〈묘족고가〉와 동일한데, 금과 은을 이용하여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金銀歌〉, 인류가 단풍나무에서 나왔다는 〈古楓歌〉, 나비에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蝴蝶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족사시〉도 ‘古歌’의 일종으로 문답형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彝族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인데, ‘老彝文’, 혹은 ‘羅羅文’·‘畢摩文’이라 불리는 古文字를 사용한다. 전해지는 책과 經文은 모두 손으로 쓴 필사본으로, 역사·서사시·신화·經書·曆法 등에 관한 것으로 약 2000여 종에 달한다. ‘畢摩’, 혹은 ‘貝瑪’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는 이족의 신화를 전승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족에게는 구비신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大小涼山에 〈古候阿補〉·〈勒烏特依〉, 楚雄지역에 우주만물을 창조한 노래인 〈梅葛〉, 만물기원가인 〈查姆〉가 있다. 《西南彝志》는 이족의 역사를 기록한 古書인데, 彝文으로 쓰여졌다. 《서남이지》는 熱臥慕史라고 불리는 歌師가 역대의 文史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편찬한 문헌이다. 이 가운데 〈創世記〉는 구두로 전해지던 창세서사를 정리한 것인데, 이족 선민들의 우주기원과 인류기원에 관한 신화와 인식을 기록하였다.

〈梅葛〉¹⁴⁾은 원래 민간에서 전해지는 曲調名으로 명절이 되면 3일 동안 부르는데, 네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호랑이가 化生하여 천지만물이 만들어지는 〈創世〉로, 이는 문헌신화 속의 반고가 화생한 것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창세신화의 구조는 대부분 민족의 기원에 그치고 마는데, 〈매갈〉은 〈창세〉 이외에도 〈造物〉·〈婚事和戀歌〉·〈喪葬〉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어 문화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수렵·농경·婚喪·도구의 창조발명에 관한 풍속에

12) 田兵이 編選하였으며, 1979년 貴州人民出版社에서 출판했다. 약 7000여 행으로 黔東南 苗族 지역에서 전해진다.

13) 馬學良과 수묘이 번역했으며, 1983년 中國民間文藝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약 3600여 행으로 주로 귀주 黔東 清水江 일대에 전해진다.

14) 운남성 민족민간문학 楚雄 조사팀이 수집 번역 정리한 것으로 1978년 운남인민출판사에서 출판했다. 약 4600여 행으로 운남성 楚雄 이족 자치주 姚安·大姚·鹽豐 등의 현에서 전해지는데, 1958년 구두로 채록되었다.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查姆〉¹⁵⁾도 창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족 사람들은 사물의 기원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查’라고 한다. ‘查姆’는 즉 만물기원이라는 뜻이다. 〈매갈〉은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고, 〈사모〉는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查’에는 120 여개가 있는데, 현재 11개만 수집되었다.

이밖에도 서남소수민족의 구비서사시 가운데 현재 漢文으로 출판된 것으로는 拉祜族의 〈牡 密〉, 阿昌族의 〈遮 麻與遮米〉, 白族의 〈開天僻地〉·〈刀薄勞胎和刀薄勞谷〉, 佤族의 〈葫蘆的傳說〉, 崩龍族의 〈達古達楞格萊標〉, 哈尼族의 〈奧色密色〉·〈哈尼阿培聰坡坡〉, 布依族의 〈十二層天·十二層海〉·〈賽胡細妹造人烟〉, 族의 〈洪水泛濫〉·〈十二格局〉, 普米族의 〈捉馬鹿的故事〉, 獨龍族의 〈創世記〉 등이 있다.

서남지역의 신화들은 대부분 일정한 줄거리가 있고, 기억하기에 편한 운문체이며,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과 신들을 제사할 때 吟誦하거나 가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한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답하는 ‘古歌’가 많이 전해진다. ‘고가’가 문답형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일부 학자들은 묘족의 문화와 《楚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했다.¹⁶⁾ 학자들은 고대 문헌신화에 보이는 창세신화·자연신화·영웅신화·幽冥신화 등 각종 모티프들이 이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선진적 문명을 건설하였던 한족의 신화가 주변민족에게 전파되었다는 일원론적인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4) 중동남 지역

江蘇·浙江·福建·安徽·江西·湖北·湖南·廣西 등지에 瑤族·毛南族·高山族·黎族 등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 중 壯族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漢藏語系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壯族·京族·黎族은 문자를 가지고 있다.

壯族은 日月에 관한 신화가 풍부하게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12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인류가 살 수 없게 되자 侯野라는 영웅이 나타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는 〈侯野射太陽〉이 유명하다. 이것은 《淮南子》에 나타나는 10개의 태양을 쏘아서 인류를 구한 羿신화와 비견된다. 또한 창조여신 米洛甲이 진흙으로 인류를 만들었다는 인류기원신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문헌신화 속의 女媧가 진흙으로 인류를 만든 신화와 모티프가 같다.

瑤族은 문자가 없으며 1949년 이전에는 대나무에 사물을 기록하였다. 요족의 창세신화

15) 운남성 민족민간문학 楚雄·紅河 조사팀이 수집한 것이다. 郭思力·陶學良이 정리하여 1981년 운남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6) 羅義群, 《苗族文化與屈賦》,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龍文玉, 〈苗族의 招魂風俗與屈原의 招魂作品〉, 《吉首大學學報》, 1982.

는 매우 풍부하며 민족적 특징을 지니는데, 크게 密洛陀 신화와 槃瓠신화로 나뉜다. <密洛陀>는 광서 중부·서부 布努瑤의 각종 구두문학 작품 속에 산전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상을 창조한 밀낙타의 업적을 노래한 <薩當琅>이 유명하다.

瑤族의 최대 支流인 盤瑤는 槃瓠를 신봉하여 개고기 먹는 것이 금기이며, 신년에 조상에 게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수확한 쌀로 개에게 먹이를 준다고 한다.

이상으로 지리권별로 나누어 소수민족의 신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상술한 자료를 토대로 소수민족의 신화를 살펴보면, 크게 蒙古族의 《蒙古秘史》, 彝族의 《彝書》·《西南彝志》, 族의 《論 族詩歌》 등 문헌에 전해지는 것, 納西族의 《東巴經》,¹⁷⁾ 이족의 《貝瑪經》¹⁸⁾ 등처럼 經書 속에 전해지는 것, 阿昌族의 《遮 麻與遮米麻》, 白族의 《開天闢地》, 哈尼族의 《哈尼阿培聰坡坡》 등과 같은 종교 지도자와 民間藝人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소수민족에 전승되는 구비신화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문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운문형식이다. 동북·중동남 지역에는 산문형식의 신화가 전해지고, 운남 지역에 거주하는 서남 소수민족 사이에는 산문 형식의 신화 뿐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풍부한 운문 형식의 신화가 전승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족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구비신화, 특히 창세신화가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세계의 문학을 살펴보면, 국가라는 공고한 통치구조가 완비되고 문자가 발달할수록 신화가 설자리는 좁아진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구술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그 생명력을 얻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남지역에 구비신화가 매우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서남지역은 1949년 이전에도 여전히 문자문화보다는 구술문학이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구비신화는 원시종교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종종 巫師의 머리속에, 혹은 종교의 經書 속에 보존되어 神聖성과 고정적인 전승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雲南과 貴州는 神話群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의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구비사서시의 변천과 양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¹⁹⁾

17) 東巴教의 巫師인 東巴가 부른다. 《동과경》은 모두 500여 권으로 남서족의 역사·철학·구비문학·종교·풍속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우주기원과 인류기원을 기록한 창세신화가 중요하다.

18) 일반적으로 이족의 문자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 사제인 ‘貝瑪’ 만이 부를 수 있다.

19) 조동일은 특히 이 지역에 풍부하게 전승되는 구비서사시에 주목하여 그것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문학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3.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국문학, 더 나아가 중국신화를 연구할 때 고대 중국의 문헌들이 한자와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漢族’의 시각에서 기술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원을 점령했던 한족은 동서남북으로 주변민족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였기 때문에, 이들은 늘 주변민족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였다. 《禮記·王制》편의 기록을 살펴보자.

중국과 이민족을 합한 오방의 백성들은 모두 각기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동방에 사는 이민족을夷라고 하는데,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에 문신을 새겼으며 화식을 하지 않았다. 남방에 사는 이민족을蠻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마에 먹물을 넣어서 새기고 양쪽 엄지발가락을 서로 향하게 하고 걸으며 화식을 하지 않았다. 서쪽에 사는 이민족을 용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곡식을 먹지 않았다. 북쪽에 사는 이민족을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새의 깃과 짐승의 털로 옷을 지어 입고 땅굴에서 살며 곡식을 먹지 않았다. 중국과 이만용적은 다 나름의 편안히 사는 집이 있고, 오미의 조화와 마땅한 의복이 있고, 이롭게 쓰이는 것과 기물이 갖추어져 있다. 오방의 백성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같지 않았다. (中國戎夷五方之民, 皆有性也, 不可推移.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有不火食者矣. 西方曰戎, 被髮衣皮, 有不粒食者矣. 北方曰狄, 衣羽毛穴居, 有不粒食者矣. 中國夷蠻戎狄皆有安居·和味·宜服·利用·備器.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通.)

위의 문장을 읽어보면, 고대의 중국 땅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다양한 집단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중원’을 차지했던 민족은 주변부 문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하에 다른 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굴절된 모습으로 기록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산해경》에 遠國異民 신화가 많이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남’을 철저하게 구분했던 이러한 인식은 철저하게 주변부 민족의 신화적 인물을 왜곡하였다. 예를 들면 《尙書》·《山海經》·《龍魚河圖》·《路史》등 문헌에서 아주 포악하고 못된 괴물의 형상으로 그려진 蚩尤신화가 대표적이다. 《산해경·大荒北經》에 묘사된 황제와 치우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자.

치우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룡으로 하여금 기주야에서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응룡이 물을 모아 둔 것을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부탁하여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천녀인 발을 내려 보내니 비가 그쳤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功之冀州之野. 應龍畜水, 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 黃帝乃下天女曰魃, 雨止, 遂殺蚩尤.)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치우는 문헌에서 “사람의 말을 하지만, 몸은 짐승이고, 머리는 구리, 이마는 쇠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래나 자갈을 먹고, 창이나 칼, 戟이나 弩 등의 무기를 만들어 천하를 횡행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등 인정사정없이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²⁰⁾ 악한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²¹⁾

하지만 황제에게 패한 치우는 소수민족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산해경·大荒南經》의 기록을 살펴보자.

송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을 육사라고 하는 붉은 뱀이 있다. 어떤 나무가 산 위에서 자라는데 이름을 단풍나무라고 한다. 단풍나무는 치우가 버린 차꼬와 수갑, 이런 것들이 단풍나무가 된 것이다.(有宋山者, 有赤蛇, 名曰育蛇. 有木生山上, 名曰楓木. 楓木, 蚩尤所棄其桎梏, 是爲楓木.)

치우가 찢던 수갑과 족쇄가 버려진 곳에서 단풍나무가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묘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그들의 조상이 단풍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湖南省 城步의 묘족에게는 단풍나무 신을 제사 지내며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악귀를 물리치는 풍속이 있다. 그들은 이 단풍나무 신이 바로 치우라고 믿는다. 또한 사천성 남쪽, 귀주성 서북 지역 일대에 사는 묘족은 ‘蚩尤廟’를 만들어 치우를 숭배하고 있다. 묘족 등 소수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치우에 관한 신화를 문헌기록과 함께 분석한다면, 당시 치우 신화의 완전한 모습을 다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승리자의 입장에서 나와 남을 철저히 나누어 주변의 문화를 왜곡되게 바라보았던 고대 중국인의 시각을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언제나 3인칭 시각에서 굴절되게 기술되었던, 지금도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는 소수민족의 신화를 깊이 있게 읽어낸다면 새로운 해석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중국이라는 政治體에서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재가공되었던 소수민족의 신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변부에 머물렀던 그들을 중심부로 끌어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4. 국가신화에서 개별신화로

周나라에 이르러 人文主義 전통이 확립됨에 따라 商代의 신화적 사유관은 더 이상 필요

20) “并獸身人語, 銅頭鐵額, 食沙石子. 造立兵杖刀戟大弩, 威振天下. 誅殺無道, 不仁不慈.” 《龍魚河圖》, 《太平御覽》卷 79.

21) 이밖에 《述異記》에서도 사람의 몸에 소 발굽, 네 개의 눈에 여섯 개의 손이 달려 있으며 귀밑 살이 칼이나 창처럼 날카롭고, 머리에 뿔이 있는 괴물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하지 않게 되었고, ‘괴이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不語怪力亂神)’ 유가의 영향으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신과 신화에 점차로 이성적인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취사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기록하였다. 漢代 지배층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마감하고 통일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전 시대의 신화전설을 하나의 정치적 원리로 통합할 필요성을 느껴 고대부터 전해지던 신화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司馬遷은 선진시기 문헌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齊魯·河南·楚지역·북부·동부 등지를 3차례나 현지답사를 하며 각 지역에 전승되던 신화를 수집하여 그것을 통합된 체계로 정리하여 ‘국가신화’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신화는 선택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부의 개별적인 신화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후 史官文化의 확립으로 中原에서 신화가 역사로 편입되면서 적어도 중원에서는 더 이상 신화를 믿지 않게 되었다.

반면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화가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楚辭》·《淮南子》·《三五歷記》·《搜神記》·《博物志》·《述異記》 등은 고대 중국의 신화가 기록된 대표적인 문헌인데, 기록자가 대부분 남방 출신 또는 남방문화권에서 생활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신화 연구자들은 문헌들이 편찬된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주의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이라는 공간에 기원과 계통이 다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지역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屈原·劉向·徐整·干寶·張華·任昉 등이 생활했던 남방은 여전히 巫風이 성행하였고, 신화적 사유가 그 존재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은 또한 여러 소수민족과 함께 생활하던 공간이었으며, 대부분 原始祭儀의 색채가 농후하여 풍부한 신화전설이 전승되고 있었다. 북방에서는 생명력을 상실한 신화가 이 지역에서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신화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한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신화에 원시사유와 원시신앙의 형태를 보존하며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대 문헌에 보이는 창세신화·자연신화·영웅신화 등 각종 모티프들이 남방 소수민족 지역에서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선진문화를 일구었던 한족이 주변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소수민족이 그대로 수용해서 나타난 결과일까?

우선 《釋史》권1에 인용된 《五運歷年記》의 반고신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처음에 반고가 태어났는데, 죽음에 임하자 몸이 변화였다. 호흡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소리는 우레와 번개가 되었다.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로 변화였다. 사지와 오체는 사극과 오악이 되었다. 혈액은 강이 되었고, 힘줄과 핏줄은 길이 되었으며, 피부와 살은 논밭이 되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이 되고, 살갓의 터럭은 초목이 되었으며, 이빨은 금석이 되었다.

정수는 주옥이 되고, 땀은 흘러 비와 이슬이 되었다. 몸에 있는 벌레들은 바람에 감응하여 등애로 변하였다.(首生盤古, 垂死化身, 氣成風雲, 聲爲雷霆, 左眼爲日, 右眼爲月, 四肢五體爲四極五嶽, 血液爲江河, 筋脈爲地理, 肌肉爲田土, 髮爲星辰, 皮毛爲草木, 齒骨爲金石, 精髓爲珠玉, 汗流爲雨澤, 身之諸蟲, 因風所感, 化爲黎甦.)

《오운력년기》는 대략 3세기 전후에 완성된 문헌인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반고신화가 3·4세기 경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고신화를 제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徐整으로, 삼국시대 吳나라 사람이다. 오나라는 남쪽에 위치했고, 蠻越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오나라는 원래 越族의 거주지로 진한 때 진시황과 武帝가 북방인들을 강남으로 이전하게 하여 토착민이었던 월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동화시켜 점점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孫權이 오나라를 건립한 이후에도 이 일대 산에는 여전히 ‘山越’이라고 불리우던 越人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반고신화는 주로 남방 고대 百越 등의 민족에게서 전승되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 월족의 후예인 壯語族의 각 민족에게는 지금까지도 풍부한 반고신화가 전승되고 있다. 예를 들면 壯族은 아직도 반고에 관한 대량의 ‘神唱’이 전해지는데, 廣西省 武鳴에 사는 장족의 巫師가 굿을 할 때 부르는 〈盤古歌贊〉²²⁾에 위와 비슷한 신화가 전해진다. 이밖에도 布依族·毛南族 등에게도 반고신화가 전승되며, 그들은 창조자로서 반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盤王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창세신화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반고신화를 문헌의 기록만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다. 소수민족 사이에 다양하게 전승되는 반고신화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신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고대 중국신화의 파편들이 문헌 속에서 어떻게 통일된 체계로 조직화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화의 발생과 성장이 가능했던 지역적 특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문화권과 남방 문화권은 각각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의 정치·역사·문화적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에 와서 중국의 역사 무대에 등장한 장강 유역의 吳·越·楚 문화가 중국문화사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²³⁾ 이제는 언제나 ‘중국’이라는 정치적 공간과 관련되어질 때만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소수민족의 신화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2) 〈盤古歌贊〉: 自我盤古初出世, 造化天盤及地盤. 左眼化爲日宮照, 右眼化爲月太陰. 骨肉化爲山石土, 頭腦化爲黃金銀. 腸化爲江河海, 血流是水去無停. 手指化爲天星斗, 毛髮化爲草木根. 只是盤古有道德, 開天立地定乾坤. 劉亞虎, 《中國南方民族文學關係史·上》, 民族出版社, 2001, 287-288쪽 참조.

23) 김학주, 《중국고대문학사》, 신아사, 2000, 27쪽.

5. 나가는 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소수민족의 신화에 ‘굳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남지역에 사는 각 민족은 토템과 조상을 제사 지낼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기우제를 지낼 때, 그리고 성년식이나 결혼식 등 인생의례에서 자신들의 신화를 노래하며 사회관계를 조화롭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서 신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족의 경우와는 달리 소수민족의 사회에서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신화가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화는 원시종교에 의해서 보존되는데, 각 민족의 司祭·巫師·歌手 등은 선조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신화를 철저한 훈련에 입각하여 암송한다. 혹은 종교의 經書 속에 보존되어 神聖性和 고정적인 전승성을 지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수민족 사회에 신화가 아직도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의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구비사서시의 변천과 양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신화의 의미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학적 고찰 뿐 아니라 민속학적 고찰과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데, 소수민족에게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 신화의 의미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데 실마리를 던져준다.

학자들은 《楚辭》 속의 각종 제사 형식, 음악과 무용 등이 현대 남방 소수민족, 특히 苗族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聞一多是〈東皇太一考〉에서 〈九歌〉 속의 동황태일의 존재를 苗族의 儼문화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는 묘족 사람들이 伏羲를 시조신으로 제사지낸다는 사실을 들어 동황태일이 바로 묘족의 민간신앙 속의 복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 《詩經》과 漢賦 등을 연구할 때 문헌전통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소수민족의 민속과 구비문학에 주의를 기울여 각 분야의 기원과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다양한 모습의 ‘중국’을 하나의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기원과 계통이 다른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담겨 있는 중국신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전통이 서로 다른 신화를 개별적으로 연구하여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에 전승되는 신화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나름의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김학주, 《중국고대문학사》, 신아사, 2000.
- 魯迅, 《中國小說史略》, 趙寬熙 옮김, 살림출판사, 1998.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1991.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연구실 편, 《강좌 중국사 1》, 지식산업사, 1989.
- 선정규, 《중국신화연구》, 고려원, 1996.
- 邵靖宇, 《漢族祖源試說》, 浙江大學出版社, 2001.
- 松本眞澄, 《中國民族政策之研究》, 民族出版社, 2003.
- 안토니 프그텐 저, 한은경 역, 《민족과 제국》, 을유문화사, 2003.
- 王孝廉, 《中國的神話世界-各民族的創世神話及信仰(上)》, 時報文化出版社, 1987.
- 劉亞虎, 《南方史詩論》, 內蒙古大學出版社, 1999.
- 劉亞虎, 《中國南方民族文學關係史·上》, 民族出版社, 2001.
- 윤내현 외 편저, 《중국사 1》, 민음사, 1995.
- 田繼周 等, 《少數民族與中華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6.
-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 살림, 1996, 2001.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패트릭 J. 기어리 저, 이종경 역,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 지식의 풍경, 2004.